

‘대설 예보’ 광주시·전남도, 안전사고 방지 총력

시, 제설에 장비·인력 총동원
도, 도민안전 신속 대응 지시
피해 최소화 위한 사전점검도

오는 10일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설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7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이날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0일 오전까지 5~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예상된다.

이에 광주시는 먼저 제설대책,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대설에 대비한 추진사항을 점검,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번 눈은 강설 지속 시간이 길어 붕괴·전도 등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광주시는 자치구, 제2순환도로 등 주요 제설 기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유기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는 폭설이 내릴 경우 그레이더(대형 제설삽날), 제설삽날 등 민간 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소형 제설장비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자치구, 제2순환도로 등 유관기관의 모든 장비·물자·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강한 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자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병관길 낙상사고를 줄이는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집과 점



광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7일 광주 북구 복문대로에서 운전자들이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눈길 속에 전조등을 켜고 서행 운전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포 앞 눈치주기 운동’에 참여해 큰 눈에 대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4시 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고광안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및 5개 자치구 합동으로 ‘대설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폭설·한파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정보공유 등 상황

근무 철저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대설 5대 분야 유형별 안전대책 △제설제 사전살포·재살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낙상사고 예방 등 대시민 홍보 등을 점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또한 대설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출근길 제설작업 철저 및 한파 취약계층 피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붕괴, 전도 등 대설 피해가 우려되는 1458개소를 긴급 점검해 99건을 신속히 조치했다.

특히 무안공항 인근 도로 제설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설차량을 전담 배치하고, 소형살포기와 한파 대비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민관 협업을 통해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전대피를 돕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농작물과 농축산시설물 관리, 고령농 등 취약농업인 야외활동 자제 등 농업인 대처 요령을 읍면 주민센터, 농업인단체, SM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비닐하우스 등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눈이 오는 날은 수시로 하우스 눈 쓸어내리기, 가온 시설이 있는 하우스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이 녹아 내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주변에 재배 중인 농작물, 인삼, 월동작물은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 정비해야 한다.

과수농가는 나무 주간부 흰색 페인트 도포 및 보온자재를 피복하고,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을 설치해야 한다. 인삼 재배시설 차광망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 일부부분을 걷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점검회의에서 “시가지 출근길 결빙 취약구간, 골목길, 이면도로, 보도 등에 제설제를 집중 살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축산 시설물과 양식장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예방 백신 없는데...”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 59%가 영유아

개인 위생 취약·집단 생활 많아
“손 잘 씻고 음식 익혀 먹어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매섭게 증가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무려 5주째 증가세로 특히 절반 이상이 영유아(0~6세) 환자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다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걸려야 치료가 가능하다.

7일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48주(작년 11월24~30일) 80명에서 49주(작년 12월1~7일) 114명, 50주(작년 12월8~14일) 142명, 51주(작년 12월15~21일) 247명, 52주

(작년 12월22~28일) 29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52주 기준 9~6세 58.8%, 7~18세 17.5%, 19~49세 11.3%, 50~64세 4.8%, 65세 이상 7.6% 비중을 보였다.

영유아가 많은 이유는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 백신이 없기에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해야 하며 집단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병하 기자·뉴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중후균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중후균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